

베트남의 캄보디아 병합(1835-1847)

- 여왕 메이(Mei)의 처리문제를 중심으로*

최 병 욱**

머리말

친베트남적 성향을 가졌던 캄보디아왕 앙 찐(Ang Chan, 1806-1835)이 1835년 사망했다. 베트남은 곧 캄보디아를 병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자 친 태국 세력인 앙 찐의 동생들이 저항했고 태국이 개입했다. 이에 상관 않고 베트남은 차근차근 캄보디아를 내지화하여 5년 뒤 1840년 캄보디아의 베트남화 작업은 일단락 된 듯 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캄보디아에서는 전국적으로 견잡을 수 없는 반베트남 항전이 일어났다. 태국군, 베트남군, 캄보디아 저항 세력이 뒤엉키는 전쟁이 전개된 끝에 세 불리를 인정한 베트남은 1847년 캄보디아에서 손을 뗐다.

베트남의 캄보디아 병합은 천여년 간 베트남 역사 속에서 쉽 없이 계속되어 왔던 남진의 연장이었으나, 그렇게만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매우 독특한 베트남적 또는 19세기적 논리와 방식이 있었던 것 같다. 논리는 매우 정교해 보이며 방식은 매우 교묘했다. 그리고 이 논리와 방식 사이로는 남성(베트남)과 여성(캄보디아)의 상호 작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 사학과 조교수

용이 흐른다.

민 망(Minh Mạng, 1820-1841) 황제 말기와 티에우 찌(Thiệu Trị, 1841-1847) 황제 시기에 걸치는 캄보디아 병합기 13년 간의 ‘실록’ (『大南寔錄』)은 베트남의 중앙 조정이 캄보디아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듯 관련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 양국 간 전쟁의 추이는 물론이고 태국의 개입 과정, 사이공/메콩 지역의 크메르인 제 반란, 캄보디아 문제와 관련된 조정의 각종 논쟁 등등... 마치 이 시기 실록의 기록은 캄보디아 경영사라 할 정도로 각종의 캄보디아 관련 기록이 풍부하다.

이런 기록의 대해(大海) 속에서 마치 조그만 삽화마냥 짙막짙막하게 스쳐지나가는 인물이 있으니 캄보디아 여왕 ‘메이(Mei 또는 Mey)’이다. 그녀는 베트남 사가들에 의해 왕으로 지칭된 적은 없다. 그녀는 양 짝의 후계자로서 명백히 캄보디아의 왕이었다. 그러나 ‘실록’에서 그녀는 일개 군(郡)의 수장이란 의미의 ‘군주(郡主)’라고 칭해지며 아무런 호칭 없이 그냥 ‘옥운(玉雲)’¹⁾이라 기록되는 경우도 많다. ‘실록’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태도에 대한 기술조차 찾아볼 수 없다. 무지막지한 베트남의 병합과 동화정책 속 희생양인 그녀는 말 그대로 양처럼 수동적인 존재처럼 보이며 베트남의 사가들에게 그 어떤 역사적 의미도 갖지 않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아이러니이다. 역사적 의미가 인정되어서 ‘실록’에 등장했을 터인데 이 인물의 외모는 물론 성격 및 태도와 관련된 단서는 전혀 잡을 수 없다.

필자의 여왕 메이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일체의 구체적 언행 없이 그림처럼 나타났다가는 사라지는 이 여성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그

1) 원 이름 ‘메이’의 차음으로 베트남인은 ‘마이 (Mây)’를 찾아낸 것 같다. ‘구름’이란 뜻이다. 이를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 ‘雲’이 되었다. ‘玉’은 베트남 왕족 여성의 중간 이름이다.

것은 비단 이 여성의 행적이나 외모 또는 성격에 대한 호기심만은 아니다. 무려 13년이나 지속된 베트남의 캄보디아 병합, 캄보디아인의 저항 및 독립 운동의 과정 속에서 여왕 메이의 존재가 꾸준히 나타난다는 사실은 여왕의 역사적 중요성을 암시한다. 베트남이 13년 간 2대 황제에 걸쳐 경국(傾國)의 공을 들였으나 결국 실패한 캄보디아 병합 과정에 늘 여왕 메이가 있었다. 여왕 메이를 주목하면 베트남의 캄보디아 병합과 캄보디아인의 저항으로만 채워진 이 13년 간 역사의 실체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짚어낼 수 있지 않을까?

베트남 역사 연구에서는 메이 여왕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단지 캄보디아의 역사를 다룬 글에서 종종 메이가 소개된다. 첸들러(David Chandler)의 *A History of Cambodia*(Westview, 2008)에서 몇 군데 메이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소략하기 그지없다. 캄보디아를 둘러싼 태국-베트남 간의 패권 경쟁을 다룬 아이랜드(Michael Dent Eiland)의 학위 논문 “Dragon and Elephant: Relations between Vietnam and Siam, 1782-1847”(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989)에서도 메이가 종종 등장하지만 베트남-캄보디아 관계의 성격 설명에서 메이를 전혀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학자 킨 속(Khin Sok)이 이 시기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모아 편집한 *Le Cambodge entre le Siam et le Viêtnam(de 1775 à 1860)*에서 메이에 관한 캄보디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소략하다. 최근에 출판된 제이콥슨(Trudy Jacobsen)의 *Lost Goddess - the Denial of Female Power in Cambodian History*(Nias Press, 2009)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1차 자료들을 섭렵해 캄보디아 역사 속 여성들의 정치적 역할을 분석한 역작이다. 이 책은 필자가 메이에 대해 오랫동안 궁금해 하던 많은 의문들을 풀어주었다. 생몰연대를 포함해서 가족 관계, 혼인 문제, 약간의 정치적 행보에 이르기까지의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준 연구물이다.

메이에 대한 기록이 가장 풍부한 곳은 베트남의 자료인 『大南寔錄』이다. 필자는 이 사료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메이에 대한 기록을 모아 재구성하고 찬들러와 아이랜드, 그리고 킨 속 및 제이콥슨의 정보를 보충하여 메이를 둘러싸고 전개되던 역사상을 구축해 보고자 한다. 제 1장에서는 여왕의 책봉 과정을 소개하겠다. 베트남이 어떤 경로를 통해 캄보디아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통제를 강화해 나가다가 메이를 선택하는가를 살필 것이다. 제 2장은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내지화하고 여왕 메이를 베트남으로 납치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메이가 캄보디아로 복귀하는 과정은 제 3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서 모호하고 파편적인 형태로 침묵하고 있는 메이를 목소리나 형태를 갖는 역사적 실체로 형상화하려 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메이의 행적을 통해서 그녀의 대척점에서 있던 베트남 황제들의 캄보디아 병합 및 내지화의 과정과 논리를 규명하는 일이다.

1. 최초의 여왕

메이는 캄보디아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왕이었다. 하지만, 여왕은 여왕이로되 불완전한 여왕이며 동남아시아의 ‘취약한 여권’²⁾의 상징이다. 전통시대 캄보디아의 국제적 지위가 가장 열악했던 시기에 타국의 정치적, 외교적 고려에 의해서 선택되고 임명된 왕이었다. 여왕은 약한 캄보디아의 상징이었다. 제이콥슨의 지적대로 여왕 메이와 베트남의 캄보디아 병합은 ‘여성 정치권력(female political

2) 동남아시아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은 활발하나 정치적 역할이나 지위는 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전통시대 여성이 왕으로서 정치권력을 행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버마의 역사 속 15세기 페구 왕조의 신소부 여왕 정도가 있을 뿐이다.

power)’과 ‘국가적 수모(national humiliation)’의 상관관계로 치환되기도 한다(Jacobsen 2009: 115).

메이가 캄보디아 군주로 선택되는 경과를 살펴보자. 앙 찐(Ang Chan) 왕에게는 네 명의 딸이 있었으니 옥변(玉卞 Baen, 1807-1840), 옥운(玉雲 Mei, 1815-1874), 옥추(玉秋 Peou), 옥원(玉原 Snguon)이었다. 캄보디아 병합을 노리고 있던 베트남의 민 망(Minh Mạng, 明命, 1820-1841) 황제는 이 중 메이를 앙 찐의 후계자로 지정해 ‘진랍 군주(眞臘郡主)’로 임명했다(『大南寔錄第二紀』, 145:24b, * 이하 『寔錄2』).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메이는 나라의 수장인 '국왕'이 아니었고 일개 군의 수장인 '군주'였다. 이 당시 베트남 황제는 중부 고원 지대 자 라이(Gia Lai) 족의 수장인 수사(水舍), 화사(火舍)의 지배자들도 국왕으로 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캄보디아 왕의 위상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짐작이 갈 만하다. 캄보디아의 지배자가 국왕으로부터 군주로 강등된 데는 캄보디아를 인식하는 베트남적 방식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앙 찐 시기 베트남, 캄보디아의 관계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앙 찐은 즉위(1806) 즉시 친베트남적 외교 방침을 천명했다. 이는 캄보디아 내 친 타이 세력과의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했다. 특히 그의 배다른 형제 세 명 앙 스구온(Ang Sguon), 앙 임(Ang Im), 앙 두앙(Ang Duang, 1796-1859)은 태국의 후원을 받으면서 앙 찐을 줄곧 위협했다. 앙 찐은 동생들의 도전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도 베트남에 더욱 매달려야 하는 처지였다. 아울러 앙 찐 형제들의 갈등은 그들 배후에 있는 베트남 및 태국 간의 지속적 무력 대결을 야기했다.

첫 충돌은 1812년에 있었다. 앙 스구온을 앞세운 타이군이 캄보디아로 들어왔고 앙 찐은 사이공으로 피신해서 베트남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당시 남부베트남을 관할하고 있던 총진관(總鎮官) 레 반 주

엣(Lê Văn Duyệt)은 앙 찐을 호위해 캄보디아로 들어가 프놈펜을 탈환했다. 이후 1820년부터 베트남은 프놈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캄보디아를 ‘보호’하는 관직을 두었으니 이를 일러 ‘보호진랍 保護眞臘’)이라 한다(『大南寔錄正編列傳初集』, 6:14). 공교롭게도 ‘보호’라는 이 단어는 훗날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접수하고 붙인 이름 ‘보호국(Protectorat)’과 흡사하다. 프랑스의 보호 명분은 태국, 베트남으로부터 캄보디아를 ‘보호’한다는 의미였겠지만 베트남의 캄보디아 ‘보호’는 친 태국 세력으로부터 캄보디아 왕을 보호하고 태국으로부터 캄보디아를 보호한다는 의미였다. ‘보호진랍’의 사령부는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지대인 찌우 독(Châu Đốc)에 있었으며 보호진랍은 베트남의 하 띠엔(Hà Tiên)과 안 장(An Giang) 지역을 관할하며 ‘보호’를 명목으로 캄보디아의 대소 내정사에 간여했다.

두 번째의 충돌은 1833년 음력 12월에 있었다. 이해 5월 사이공에서 레 반 코이(Lê Văn Khôi)의 반란(1833-1835)이 일어났고, 레 반 코이의 반란 지원과 캄보디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겨냥해 타이군이 대거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공격해 들어왔다. 앙 찐은 다시 베트남으로 피신해 왔다. 이번에는 레 반 코이 반란 평정을 책임지고 있던 쯤영 민 장(Trương Minh Giảng, 1792-1841)이 그를 호위해 프놈펜으로 들어갔다. 쯤영 민 장은 프놈펜의 왕궁 근처에 성을 쌓고 (鎮西城) 이곳에 병력을 주둔시켰다(『寔錄2』, 142:18b). 캄보디아 왕성 바로 옆에서 대군을 이끌고 캄보디아 왕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쯤영 민 장에게는 다음과 같은 긴 직함이 부여되었다: ‘평성백동각대학사태자태보령안하총독보호진랍(平城伯東閣大學士太子太輔領安河總督保護眞臘).’

1812년의 보호와 1833년의 보호는 보호직을 수행하는 인물의 면면이 달랐다. 앞의 ‘보호진랍’은 무관이었다. 그의 권한도 군사적 ‘보호’에 주로 한정되어 있었을 뿐이고 캄보디아의 내정에 간섭은

하되 캄보디아의 국가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 뒤의 보호였던 쓰엉 민 장은 위의 직함에서 보듯 백작의 작위에 동각대학사에 태자 태보 및 남부베트남의 두 개 성(省) 안 장(An Giang)과 하 띠엔(Hà Tiên)을 관장하는 총독이기도 한 문관이었다. 이 어마어마한 직함을 가진 쓰엉 민 장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주둔하면서 캄보디아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병합의 수순을 밟아나가기 시작했다.

진서성의 쓰엉 민 장으로부터 ‘보호’ 받던 앙 째이 1835년에 사망했다. 베트남은 앙 째의 차녀 메이를 후계자로 지정했다. 왜 장녀 옥변이 배제되었던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실록’에 언급이 없다. 그녀가 친 태국적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Chandler 2008: 151; Jacobsen 2009: 112) 이 당시 그녀에게 친 태국적 성향이 감지되었는지 분명한 증거가 없다. 단지 그녀의 어머니가 (* 메이와 옥변은 배다른 자매이다) 당시 태국의 영향 하에 있었던 바탐방(Battambang) 총독의 딸이었다는 사실이(Khin Sok 1991: 88) 그녀를 왕위계승에서 제외시켰던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옥변을 주시하고 있던 베트남 측은 5년 후인 1840년에 그녀가 친 타이 인사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잡고 처형했다(『寔錄2』, 215:9-10).

이 외에도 옥변이 베트남 황제의 아들과 결혼하라는 베트남 측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소개되고 있다(Khin Sok 1991: 87; Jacobsen 2009: 112). 캄보디아 여왕(또는 여왕 후보)을 베트남 왕실의 며느리로 맞는다는 것은 민 망 황제에게 매력적인 발상이었을 것이다. 이 시기는 이미 남부베트남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민족 간의 혼인도 장려되었던 바였으니(Choi 2004: 149-151) 캄보디아 여왕과 베트남 왕족 젊은이와의 결혼은 가장 이상적인 양국 일가화이자 동화의 표본이 될 수도 있었다. 민 망 황제는 메이와도 자신의 아들 중의 하나를 결혼시키려 했었다고 한다

(Jacobsen 2009: 112).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캄보디아 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베트남 쪽도 이런 식의 결합에 오랫동안 크게 집착했던 것 같지는 않다. 옥변이 왕위계승 경쟁에서 밀려난 것은 베트남 왕실의 며느리가 되기를 거부해서였다기 보다는 그녀의 친타이적 잠재성향에 대한 베트남 측의 고려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며느리 삼는 일은 그만두었다 치더라도, 양 짚의 딸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한 베트남 측의 논리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망해 없어진 것을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이어 주었다(興滅繼絕)”(『大南寔錄正編第三紀』, 63:9, 이하 『寔錄3』)였다. 망해 없어진 것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태국의 침입으로 망한 나라를 살려내 주었다는 뜻이다. 1812년과 1833년 공히 태국은 프놈펜을 점령했다. 베트남 입장에서 보자면 양 짚의 캄보디아는 태국의 침입으로 망했지만 베트남이 도와 나라를 존속시켜 주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주장이다. 끊어졌다는 것은 양 짚 왕이 아들 없이 사망했음을 이른다. 민 망이나 티에우 쩌 공히 양 짚 왕이 아들 없이 사망했음은 ‘무사(無嗣)’ 즉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딸이 넷이나 있지만 정치는 모름지기 남성의 영역이라 여기는³⁾ 베트남 남성들의 눈에 딸은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무사’였던 것인데, 이제 캄보디아의 끊어진 왕계를 딸으로나마 이어주는 호의를 자신들이 베풀었다고 자찬(自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끊어진 것을 잇는 일이기에, 그리고 여성이기에, 더 나아가 장녀가 아니라 차녀이기에 격(格)은 왕이 아니라 군주였다.

3) 베트남 역사에서도 여왕은 매우 예외적이다. 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여성이었지만 (Chiêu Hoàng), 그녀는 왕위를 남편에게 빼앗겼고 나라는 남편의 집안인 쩌 씨 일가에게 넘어갔다. 그보다 먼저 기원 후 1세기 중국 후한에 대한 저항운동을 주도한 쯩 자매 중 언니가 왕위에 오르고 ‘쯩 왕’이 되었으나 베트남인들은 ‘쯩 왕’ 보다는 두 자매를 합칭해 ‘하이 바 쯩(두 명의 쯩 아줌마)’이라 부르기를 좋아한다.

메이는 1835년 음력 3월 민 망 황제에 의해 군주로 책봉되었다. 앙 찐이 1834년 음력 12월에 사망했으니(“眞臘國王匿禎薨”)(『寔錄2』, 141:30b), 4개월 뒤의 일이다. 이에 대한 ‘실록’의 기록을 보자:

“번왕(藩王)의 차녀(次女) 옥운(玉雲)을 봉하여 진랍군주(眞臘郡主)로 삼고 관복(冠服)을 하사했다. 황제가 생각하길, 번왕(藩王)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고(無嗣) 나라일을 맡아 할 가까운 인척도 없는데 듣자니 옥운(玉雲)의 자질과 성격이 총명하고 지혜로운데다가 평소 [캄보디아] 왕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여 이에 그를 봉했다. 옥운의 언니 옥변(玉卞)과 여동생 옥추(玉秋) 및 옥원(玉原)은 각각 봉하여 현군(縣君)으로 삼았다.”(『寔錄2』 145:24b)

위의 기록을 보면 캄보디아 왕에 대한 호칭의 격이 점차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망 당시까지 캄보디아 왕은 ‘진랍(캄보디아)’의 왕이었다. 사후 4개월 만에 제후국의 수장이라는 의미의 ‘번왕’이 되었다. ‘번왕’은 앙 찐 생전에도 종종 ‘진랍국왕’과 더불어 사용되었으나 사망 이후는 오로지 ‘번왕’만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번왕의 후계자는 군주로 강등되었으니 진랍은 나라(國)의 지위에서 군(郡)으로 강등되고 메이는 군의 수장이 된 것이다.

그래도 메이는 아직 캄보디아의 왕이었다. 베트남 황제는 그녀를 비록 왕이 아닌 군주로 봉했지만 적어도 캄보디아인들에게 메이는 왕이었다. 이는 중국에서 베트남 왕을 황제가 아닌 왕으로 봉했다고 해도 베트남인 사이에서는 그가 황제인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더군다나 그녀는 전 왕이 남기고간 왕의 상징인 보검을 보유하고 있었고 왕이 남긴 왕실 재산도 계승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캄보디아의 역대 왕들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아편 제조와 도박장 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징세청부권(tax farm)을 그녀는 보유하고 있었으며(『寔錄2』, 195:28b),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특산물인 백두구(白荳蔻)에 대한 전

매권도 아직 그녀가 행사하고 있었다(『寔錄2』, 216:26a).

베트남이 새로 고안해 낸 ‘진랍군주’라는 직책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 양 짠 사망 즉시 캄보디아 지배에 대한 구상에서 민 망 황제는 캄보디아 왕실의 ‘가사(家事)’와 ‘국사(國事)’를 구분한 바 있다. 그가 메이에게 맡긴 분야는 가사였다. “번왕의 차녀 옥운은 자질이 자못 지혜로우니 가사를 [양 짠을] 대신해 처리하게 한다”(『寔錄2』, 141:31b)는 것이었고 4개월 후 메이를 책봉할 때 “번왕의 인장은 차룡(茶龍)과 라견(羅堅) (*캄보디아의 실력자) 등으로 하여금 쓰영 민장과 레 다이 끄영(Lê Đại Cương)⁴⁾을 좇아 맡아 간수하게 하고 캄보디아의 국사, 군사, 관리 행정의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보고하여 밝게 처리해야 한다”(『寔錄2』, 141:31a)고 했으니 ‘국사’는 캄보디아의 친베트남 관료들의 손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적어도 명목상으로 캄보디아 여왕의 지위는 ‘집안 일’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계보상, 혈통상 캄보디아 왕의 위상만 놓고 본다면 국가의 지배자로부터 가사담당자로서의 일개 여성으로 떨어진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로 봉해진 메이의 태도는 민 망 황제가 보기에 공순하기 그지없었다. 1836년 음력 정월 그녀는 백두구 500근을 바치며 “[베트남] 조정을 앙모(仰慕)하고 두터운 은택을 입었는데, 이미 삼 도둑을 평정한 후에 다시 병사를 파병하여 막아내고 보호함에 영원토록 걱정이 없게 하시니 [...]”(『寔錄2』, 165:7)라며 민 망의 은혜를 찬양했다고 한다.

2. 베트남으로의 납치

베트남의 캄보디아 지배가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으나 민

4) 참찬(參贊)이라는 직책을 갖고 쓰영 민 장을 보좌했음.

망 황제가 추구했던 궁극적 목표는 병합이었다. 여성으로써 캄보디아 왕을 삼고 그녀의 권한을 극도로 축소시킨 마당에 ‘보호’란 싱거운 허명이었을 뿐이다. 1835년 음력 10월 ‘보호’는 파기되고 ‘장(將軍)’이라고 하는 군사적이고 남성적인 직책을 통한 지배로 전환되었다. 프놈펜 왕궁 옆에 쌓은 보루의 이름이었던 ‘진서성’을 캄보디아 전역에 적용시킴으로써 캄보디아는 진서성이 되었다. 쓰영 민 장이 갖고 있던 ‘보호진랍국인’은 파기되었다. 진랍이 나라가 아닌 이상 ‘진랍국’이라는 호칭은 맞지 않는 것이기도 했다. 새롭게 구조되어 쓰영 민 장에게 주어진 인장은 ‘진서장군인(鎭西將軍印)’이었다(『寔錄2』, 160:27). 캄보디아는 장군이 지배하는 성(城)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캄보디아 여왕인 ‘진랍군주’ 메이 위에 베트남인 ‘진서장군’ 쓰영 민 장이 올라타고 앉은 형세였다. 그러다가 2년 뒤 1837년 음력 10월에 캄보디아 내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정 백관이 모인 한 조회 시간에 민 망 황제는 캄보디아에 대한 완전 병합 정책을 선언했다. 요지는, 그동안 캄보디아를 보호해 오고 메이를 군주로 세웠지만 한낱 아녀자가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기 힘들니 베트남이 직접 캄보디아를 지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진랍이 이미 판도에 들어왔으니 짐은 [이를] 나누어 부현(府縣)을 설치해 가르치고자 한다 [...] 섬라 군을 소탕하고 그 땅을 수복한 후에 다시 그 딸 옥운을 군주로 봉하여 백성들을 돌보아 받아들이게 하였고 궁실을 만들어 거처하게 하고 관병을 파견해 보호하게 하였다. 번료(藩僚)의 우두머리들에게는 한직(漢職, *베트남의 직책)을 부여하였고 번민(藩民) 중의 다수를 뽑아 현지 병사로 삼았다 [...] 단지 병사와 민간 사무 관리의 직책 등은 옛날의 [비루한] 습속으로 인해 제대로 갖추어질 시간이 없었다. 군주는 일개 아녀자(一婦女)이기에 바깥일을 엄격하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감당하기 힘들다.”(『寔錄2』, 185:12b-13)

내지화가 선언된 후 캄보디아는 10개 부(府), 23개 현(縣)으로 재편되었으며 베트남화 작업이 수행되었다. 캄보디아의 베트남화는 ‘하나로 보아 어짐을 함께 한다(一視同仁)’는 베트남 내 동화정책의 캄보디아에의 적용 작업이었다.⁵⁾ 베트남 관리 및 교사가 파견되었고, 베트남식 토지 측량이 실시되었으며, 지도가 그려졌고 의복, 두발의 베트남화가 추진되었다. 여성들은 베트남 여성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고 치마 대신 바지를 입으라고 강요받았다(Chandler 2008: 155; 최병욱 2009: 86-87). 아울러 민 망 황제는 메이의 직위를 1840년 음력 5월에 진랍군주에서 미림군주(美林郡主)로 다시 강등했다(『寔錄2』, 213:18). 미림이란 베트남이 캄보디아에 새로 설치한 10개 부(府) 중 1개 부의 명칭이다. 메이는 다시 1개 부의 군주로 격하된 것이다. 아울러 그의 세 자매 옥변, 옥추, 옥원은 각각 현 단위의 직급을 의미하는 여안현군(閩安縣君), 수충현군(輸忠縣君), 집녕현군(輯寧縣君)으로 봉해졌다. 메이에게는 100명, 세 자매에게는 각각 30명의 병사가 배당되었고 봉록은 일년 단위로 메이에게 세전(歲錢) 500민(緡), 쌀 100 방(方)이 주어졌다(『寔錄2』, 213:18). 이 액수는 당시 베트남의 정1품 봉록보다 낮고 종1품의 봉록(『寔錄2』, 207:44) 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진랍군주와 미림군주는 ‘나라(國, 진랍)’와 ‘부(府, 미림)’라는 위계의 우열뿐만 아니라 베트남화의 정도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진랍’은 고대 캄보디아 제국인 ‘첸라(Chenla)’의 음차로서 중국,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에서 캄보디아를 지칭할 때 사용되던 관용어이다. 이에 반해 미림은 지방제도의 베트남화 과정에서 베트남식 한자 조어법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진랍군주’에 비해 ‘미림군주’는 훨씬 베트남화에 다가간 명칭인 것이다. 미림군주를 봉한지 얼마 되

5) 민 망 황제의 일시동인(一視同仁) 정책에 대해서는 최병욱, 『19세기 베트남의 단일 민족 만들기 - ‘漢夷有限’에서 ‘一視同仁’으로』 (2009) 참조.

지 않아 베트남은 캄보디아 국왕들의 묘당(廟堂)을 베트남식으로 만들기로 했다(『寔錄2』, 213:26a). 이는 죽은 자에 대한 베트남화라 할 수 있다. 살아 있는 왕(메이)은 베트남식 관복을 입혀서 베트남식 부(府)의 수장으로 강등하고 죽은 왕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위패를 베트남식 묘당에 가두고 베트남식으로 제사지내고자 하고 있으니 산 자와 죽은 자를 아우르는 철저한 베트남화 작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베트남 입장에서 보자면, 캄보디아 내지화 작업은 ‘침략’이 아니었다. 이미 수차례 캄보디아왕은 타이군이 들어왔을 때 나라를 버리고 베트남으로 도망쳐 왔다. 그래도 선왕 자 롱(Gia Long, 1806-1820) 황제 시기에는 캄보디아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끝났지만 민 망 황제는 1833년 양 째이 다시 도망쳐 들어왔을 때 이미 “진랍의 토지, 인민은 더 이상 그들의 소유가 아니다(眞臘之土地人民又非其所有矣)”(『寔錄2』, 213:26b) 라고 천명하면서 캄보디아를 병합했고, 이 행동을 정당화 하느라 “그 땅에 군현을 설치한 것은 타이인으로부터 그것 [진랍]을 얻은 것이지 진랍으로부터 취한 것이 아니었다 (郡縣其地是得之於暹人非取之於眞臘也)”(『寔錄2』, 213:26b) 고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이 캄보디아 병합을 ‘침략’이라고 보지 않는 인식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베트남화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메이가 있는 이상 그녀는 항상 캄보디아인의 잠재적 구심점이었다. 그래서 베트남은 메이를 캄보디아인들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려 했다. 민 망 황제나 티에우 쯔 황제 공히 캄보디아인들은 베트남 조정의 ‘붉은 핏덩이 아이들(赤子)’임을 강조하곤 했으니 캄보디아 여왕 메이는 캄보디아인과 베트남 황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 만약 메이의 행적에서 그럴듯한 죄과가 발견된다면 그 구실로 제거해 버리면 그만이었겠으나 딱히 죄과도 찾아지지 않았다. 그녀

는 베트남의 경계심을 자극할 만한 어떠한 언행도 없었다. 이 때문에 현재 일부 캄보디아인들의 기억 속에도 그녀는 “권력에 집착했으며, 벌레 같은 베트남 놈들(yuon)로 하여금 캄보디아를 집어먹게 했다 [...] 그렇게 해서 자신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다(Jacobsen 2009: 115). 심지어 그녀는 진서장군 쓰영 민 장에게 몸도 팔고 나라도 팔았다는 소문에 시달릴 정도이기도 했다.⁶⁾

이렇듯 ‘결벽한’ 친베트남 인사 메이를 제거하기 위해 베트남 황제와 쓰영 민 장이 생각해 낸 방식은 그녀를 베트남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즉 평화적 납치였다. 이 작업을 통해서 베트남은 캄보디아 베트남화 작업에 최종적 마침표를 찍으려 했던 것 같다. 찬들러에 의하면, 납치 방법은 매우 용의주도했다. ‘베트남 오페라’가 공연되고 술잔이 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여왕과 그녀의 자매들은 쓰영 민 장이 메콩 강 상에 준비한 선박으로 유인되었다. 한 목격자는 “그들은 [메이 등] 줄곧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모두 행복해 했다”고 전하고 있다(Chandler 2008: 158). 메이 일행은 사이공으로 후송되어 안치되었다. 이때가 메이의 나이 25살이었다. 실록에는 메이 자매의 사이공 이송 이유가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寔錄2』, 215:9-13a). 요약하면, 옥변이 도망치려 했고, 정황상 메이 자매들이 옥변과 공모하지 않았겠느냐는 의심 때문이었다. 옥변은 수감되었고⁷⁾ 메이 등으로부터는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지만 이런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이 자매들을 사이공으로 옮긴다는 것이었다. 사이공에 “2, 3간짜리 집을 엮어 메이 등을 편히 살게

6) Jean Moura, *Le royaume du Cambodge*(Paris: E. Leroux, 1883) tome1, pp. 234-235, Khin Sok(1991), pp. 109에서 재인용.

7) 그 뒤 옥변은 처형되었다. 일설에는 메이 등이 사이공으로 납치된 이후 베트남인들이 그녀를 메콩 강에 빠뜨려 죽였다고도 하고, 그녀 역시 베트남으로 이송되었다가 거기서 쓰영 민 장에 의해 고문당하다 죽자 그녀의 시체는 자루에 담겨 강물에 던져졌다는 설도 있다. Jacobsen(2009), pp. 113.

하고(構家屋二三連俾玉雲等安住)” 메이에게는 베트남인 병사 20여인, 옥추와 옥원에게는 각각 10명씩 붙여 감시하게 했다.

메이를 사이공으로 옮김으로써 캄보디아의 베트남화 공식 작업을 완료한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었다. 오히려 이 조치는 캄보디아인의 거국적 저항만을 불러일으켰다. 찬들러의 설명대로, 프놈펜에서 메이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특히 귀족층은 그녀가 살해당했다고 여겼으며 다음은 자기들 차례라고 생각하며 동요했다. 아울러 캄보디아인들에게 군주가 사라진 것은 국가가 사라졌다는 위기의식으로 작용했다는 설명도 일견 타당성을 가진 듯 보인다(Chandler 2008: 158-159; Eiland 1989: 167). 그러나 과연 이 당시 캄보디아 농민들 사이에서 국가가 사라졌다는 의식이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심각한 상실감을 갖게 했는지, 또 그들이 과연 국가 의식을 갖고 저항을 한 것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일반 농민들은 국가가 사라졌다는 걱정보다 왕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이는 일찍이 아이모니에(E. Aymonier)가 지적했듯이 “국가와 왕실의 존재를 결코 떼어내서 생각하지 않는”⁸⁾ 캄보디아인들의 전통적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베트남의 황제가 파악하고 있던 메이와 관련된 반란의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다. 이즈음 캄보디아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수많은 베트남 정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종종 캄보디아인 사이에서 돌고 있던 전단들을 구해 왔다. 이것들을 소위 ‘만서(蠻書)’라고 하는데, 남부의 베트남 지방관들은 이를 번역해 중앙 조정에 보고하곤 했다. 예를 들어 비엔 호아 (Biên Hòa)에서 습득한 한 만서에는 “[우리는] 군주(郡主)⁹⁾도 잃고 엄(俺)¹⁰⁾도 잃었다”(『寔錄2』,

8) Etienne Aymonier, *Le Cambodge* (Paris: E. Leroux, 1900-1904) tome 1, pp. 56, Osborne (1997), pp. 182에서 재인용.

9) 원본에는 ‘왕’이었을 것임.

10) 양 째의 동생으로서 타이군과 더불어 들어온 양 임 (Ang Im)을 가리킨다. 그는

218:39)며 원망을 토로하고 있고 하 띠엔¹¹⁾에서 한 정탐이 습득한 만서에는 쓰엉 민 장에 대한 원망과 베트남인 토지 측량 관리들의 악행이¹²⁾ 서술되어 있다.

이 중 쓰엉 민 장에 대한 불만 중의 하나는 그가 “군주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자 한다 (欲娶郡主爲妻)” (『寔錄2』, 220:12b)는 것이었다. 쓰엉 민 장이 베트남으로 납치해간 메이를 아내로 삼으려 한다는 소문이었다. 어느 날 자신들의 왕이 사라진 충격 속에서 난무하던 여러 가지 추측 중의 하나였을 터이다. 이때가 1841년으로서, 1792년생인 쓰엉 민 장의 나이 50세였다. 쓰엉 민 장 집안의 족보에 의하면, 그는 이미 세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으니 (『張嘉祠堂世譜全集』, 10, 각각 1806년, 1807년, 1807년생임, 당시 35-36세) 25살의 메이를 취한다는 것은 첩¹³⁾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한 국가의 여왕이

9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베트남에 귀부했으나 민 망 황제는 그를 후어로 압송해 감금했다.

- 11) 이 당시 하 띠엔의 일부 지역은 앙 찐 시기에 캄보디아 영토로부터 베트남 영토로 할양된 곳도 있었고, 부현의 설치 과정에서 캄보디아로부터 하 띠엔 관할로 편입된 지역도 있었다. 그래서 만서를 습득한 곳은 하 띠엔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원 캄보디아 땅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하 띠엔을 포함한 남부베트남 지역에서도 광범하게 크메르인의 반베트남 운동이 전개되고 있던 터라 이들 사이에서 메이에 대한 정서는 동일했을 개연성이 높다.
- 12)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내지화 하면서 세금 수입의 안정된 확보를 위해 토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자행되었다. 그밖에도 뇌물을 받아 챙기거나, 부녀를 탈취하여 집안 노예로 삼는 일, 수리시설의 사적으로 독점하는 일, 강물 요로에 초소를 만들고 상선들로부터 세금을 갈취하는 행위, 캄보디아인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교만한 태도 등이 조정에서 파견한 감찰관들에 의해서 적발되고 있다. 『寔錄2』, 219:14.
- 13) 족보상에 쓰엉 민 장의 세 부인은 순서대로 ‘一室,’ ‘二室,’ ‘三室’이라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이 집안의 공통적인 표기법인데 두 번째 부인 이하를 ‘첩’이라고 여길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처와 첩의 구별 기준을 편의상 ‘합법적 혼인’ 여부라고 할 때 메이는 만약 혼인 의식을 치른다면 첩이 아니라 그냥 네 번째 부인 (四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념상 25살의 여성이 50 노인 (당시 기준으로)의 아내 그것도 네 번째 아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부부생활과 다음 세대 생산에 대한 기대와는 거리가 먼 성적 노리개 정도로밖에 치부되지 않았을 (캄보디아인이나 베트남인에게 공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정서를 고려하여 메이에 대해서는 첩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이웃국 대신의 첩으로까지 전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게 만든 것이 당시 베트남의 위세였고 캄보디아의 신세였다.

캄보디아의 저항이 견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타이군이 적극 개입했다. 도저히 캄보디아에서 버틸 수 없던 쓰영 민 장은 철수했다. 철수 즉시 그는 캄보디아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자결했다(『寔錄3』, 11: 20a). 메이를 직접 통제했던 이는 쓰영 민 장이었고 그 배후에는 민 망 황제가 있었다. 몇 달 전 50살의 나이로 민 망이 먼저 사망하고(1840년 음력 12월) 쓰영 민 장이 자결한 것이니(1841년 음력 7월) 캄보디아 병합의 두 주역이 같은 해 같은 나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난 것이다.

실제로 쓰영 민 장의 첩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메이의 신세는 형편 없는 지경으로까지 떨어졌다. 그녀의 수입원이었던 도박장 개설, 아편 제조 허가권은 이미 1838년에 박탈당한 상태였고(『寔錄2』, 195: 28b) 백두구 독점권도 베트남으로 납치되면서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베트남에서도 그녀는 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줄곧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해야 했다.

3. 반절(半折)의 복귀

메이를 캄보디아로 돌려보낸다는 결정은 1841년 음력 4월에 있었다(『寔錄3』, 4: 16a). 이보다 먼저 민 망 사망 얼마 전부터 메이 등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민 망 황제는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寔錄2』, 217: 19). 그로서는 재위기 20여 년 동안 공을 들여온 캄보디아 합병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민 망 사후 캄보디아인들의 반발은 더 거세어지고 남부베트남 내에서 크메르인의 저항도 격렬해지는데다가 타이

군 및 두앙 세력의 적극적인 공격이 계속되면서 베트남으로서는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메이를 다시 캄보디아로 보냈다. 도착 즉시 메이는 관료들을 새로 임명하고 지방의 지도자들에게는 캄보디아 국왕의 공식 직인이 찍힌 서한을 보내 자신의 복귀 사실을 통고했다고 한다(Jacobsen 2009: 114; Eiland 1989: 150).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메이의 귀환은 “너무 늦었다.”(Eiland 1989: 150) 이미 두앙 측의 세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그 위에 메이의 권위가 캄보디아인들 사이에 이미 먹혀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 전통에 비추어 보건대 유례가 없는 여성 왕으로서 메이는 충분히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던 데다가 납치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쓰엉 민 장의 ‘첩’(또는 情婦)으로까지 의심받던 메이라서 캄보디아인으로부터 온전한 여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상실했을 수도 있다. 여왕이 납치된 데 대해 분개하는 것과 여왕의 권위에 대한 존중은 별개의 문제였다. 애초에 여성을 양 잔의 후계자로 지명한 것부터가 캄보디아 귀족들에게는 모욕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도 있었다(Eiland 1989: 145). 캄보디아에서 여성의 활동 범위는 사적인 영역(private space)에 한정되어 있었으며(Jacobsen 2009: 5), 이는 동남아시아의 보편적 현상이기도 한 것이다(최병욱 2006: 31). 베트남도 마찬가지였다. 민 망 황제가 메이의 역할을 ‘가사’에 머물게 한 것은 공적 공간의 주인공인 왕을 군주로 강등시켜 사적 영역으로 활동의 범위를 한정시킨 조치로서 이는 왕을 군주(郡主)로 강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왕을 ‘여성화’ 또는 ‘사적화(私的化)’ 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다. 캄보디아인들로서는 사적화 된 여왕의 피랍을 애석해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녀의 공적 기능까지를 인정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음력 9월 베트남군은 캄보디아로부터 철수했고 메이는 쓰엉 민 장과 더불어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안 장 성에 안치되었다. 그

녀는 락 호아(Lac Húa) 부(府)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寔錄3』, 11: 21). 이곳은 남부베트남 내에서도 크메르인의 집중 거주 지역으로 유명하며 현재도 크메르인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곳이다. 베트남 측은 그녀를 크메르인 공동체 의식이 강한 이곳에 살게 하면서 그녀가 크메르인 사회를 결속시키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바랐던 것 같다.

그러나 메이의 존재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는지 그녀를 크메르 지역으로부터 베트남인이 많이 사는 곳으로 다시 옮겼다. 1844년 음력 3월의 기록에서는 “이전의 거주지가 매우 습했기 때문에 군주의 거소를 안 장 성 성청 소재지 오른쪽으로 옮겼다”라 하고 있다(『寔錄3』, 37: 18b-19a). 소재에 대한 기록만으로 본다면 그녀는 사이공, 캄보디아, 락 호아, 안 장 성 성청 소재지 등 네 곳을 옮겨 다니고 있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베트남이 메이의 이용 가치를 늘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완전히 메이를 제거할 생각을 했다면 사이공이나 베트남 남부가 아닌 베트남의 수도로 데리고 가서 황제 곁에 살게 하는게 정답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측은 메이를 사이공, 락 호아, 안 장 성 소재지 등 즉 크메르인 거주지와 베트남인 거주지로 옮겨 다니며 끌고 다녔고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번갈아 들락거리게 하고 있었다. 남부에서 크메르인의 소요가 심해지면 그들을 무마하는데 메이를 앞세우고, 또 캄보디아 사태가 심각해지면 그녀를 데리고 캄보디아로 들어가던 탓에 메이의 동선이 이처럼 복잡해진 것이다.

‘실록’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투르디에 의하면, 1844년에 메이가 프놈펜에 있었다고 한다. 이 해 메이가 여왕으로 복귀했으며 동생 옥추(玉秋, Peou)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해 말로 접어들면서 베트남인들도 이들의 정통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메이의 입지를 강화하려 노력했다(Jacobsen 2009: 114). 위에

서 소개한 거쳐 이동 경로와 연결시켜 본다면, 메이는 1844년 안장 성의 성도로 옮겨다가 거기서 다시 한 번 캄보디아로 옮겨졌던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1845년의 영구 귀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트남군은 1845년 음력 7월에 프놈펜을 탈환했다(『寔錄3』, 49: 23). 이어서 그보다 북쪽 타이군이 진치고 있던 우동(Oudong) 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군사적 우열이 판가름나지 않자 베트남과 태국은 정전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메이 자매와 두앙의 모친 및 처첩 등을 모두 캄보디아로 귀국시킬 것이 결정되었고 1845년 음력 11월 이들은 프놈펜으로 돌아갔다(『寔錄3』, 52: 11; 54: 17a; 58: 4a) 이즈음 캄보디아에서는 그동안 베트남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주도해 왔던 두앙의 입지가 확고해져 있었다. 태국은 그를 왕으로 앉히고자 하였고 베트남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보다 2년 전인 1843년 베트남 조정에서 캄보디아 철병 논의가 있었을 때 철병을 주장한 쪽에서 주장한 “얻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지킬 일이 힘들다(取之非難守之爲難)”(『寔錄3』, 30: 10)는 인식에 황제 이하 베트남 지배자들이 충분히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민 망 시기 동화정책과 메이의 납치 같은 악수(惡手)로 인해 캄보디아 민심이 베트남에 등을 돌린 상태에서 다른 대안은 없었다.

베트남에게 남은 일은, 캄보디아 내에서 베트남의 지분을 최대한 유지, 확보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메이가 더 필요했다. 베트남으로 보자면 가장 유리한 방법은 두앙과 메이가 각각 관할지를 양분하는 것으로서, 이는 친타이, 친베 세력이 캄보디아를 나누어 지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메이는 1835년 군주로 봉해진 이래 한번도 자율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는 만큼 메이의 관할지는 결국 베트남의 관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방안을 태국이나 두앙 측에서 수용할 리가 만무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해법은 다음과 같다. 두앙을 국왕으로 인정하고 메이는 군주로 둔 상태에서 두 사람이 서로 도와 캄보디아를 공동으로 관할한다는 것이다(『寔錄3』, 65: 2b). 적어도 명목상으로 메이는 나랏일에서 절반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메이가 캄보디아를 공동 관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베트남이 강조한 명목은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관할 구역이 분리되지 않았으니 베트남이 개입할 수 없어졌다. 이쯤에서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대한 미련도 다 떨쳐버린 듯 했다. 두앙과 메이가 공동으로 캄보디아를 관리하게 한다는 것은 명분만의 고집이었다.

베트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분에 최대한 충실하고자 했다. 두앙을 왕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책봉을 위해서 베트남이 준비한 국새에 새겨진 호칭은 ‘진랍국왕(眞臘國王)’이 아니었다. ‘고만국왕(高蠻國王)’이었다. 나라의 격을 ‘진랍’에서 ‘고만’으로 낮춘 것이다. 메이에 대해서는, ‘미림군주(美林郡主)’였던 그녀를 ‘고만군주(高蠻郡主)’로 승격시켰다(『寔錄3』, 65: 5a). 메이가 그녀의 최초 직함인 ‘진랍군주’로까지는 복귀하지 못했지만 ‘미림군주’로부터 ‘고만군주’로 지위를 높임으로써 ‘고만국왕’과의 지위와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차이는 ‘국왕’이나 ‘군주’냐였다. 그리고 태국이 지원하는 두앙을 캄보디아의 왕으로 인정은 하되 베트남이 메이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두앙으로 하여금 줄곧 기억하게 하는 방식은 이후 줄곧 이어지는 베트남의 대 캄보디아 통제방식이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캄보디아로부터의 조공은 삼년 일공으로 고정되었으나 두앙은 거의 매년 사절을 보냈고 메이의 사절이 따로 오지는 않았다. 두앙으로 보자면 베트남과의 관계 독점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를 교묘히 거부했다. 베트남 황제가 캄보디아 조공에 대한 답신의 예물을 하사할 때는 캄보디아 왕의 것과 함께 항상 메이

에 대한 선물 하사도 잊지 않는 배려를 보였던 것이다. 이는 메이를 보호함과 동시에 베트남이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실록’에는 티에우 찌의 뒤를 이은 트 득(Tư Đức, 1848-1883) 황제 재위기인 1856년까지 사은품 동시 하사의 기록이 보인다(『大南寔錄正編第四紀』, 16: 13).

이 기사를 끝으로 ‘실록’에서 메이에 대한 언급은 사라진다. 그녀는 1874년까지 우동에 생존해 있었으나 두앙의 사망, 노로돔(Norodom)의 계승, 프랑스 지배의 시작 등 1850년대와 60년대 캄보디아 역사의 흐름이 두앙 계열로 고착이 되고서 캄보디아에서 메이의 존재 의미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된다. 베트남도 프랑스의 침입에 대응해 바빠지면서 메이를 잊어버리게 된 것 같다. 민 망 때부터 시작된 메이에 대한 3대에 걸친 관심은 트 득 시기까지 이어졌다가 프랑스가 들어오고서야 종결된 것이다.

캄보디아 연대기(*Preah Reach Pongsavadar Krung Kampucheahipadei*, 위대한 캄푸체아국 왕실 연대기)에 의하면 그녀는 우동에서 거주하다가 사고에 의한 화상으로 1874년 사망했다고 한다(Khin Sok 1991: 108). 그런데 그녀가 사망하기 몇 달 전 그녀를 방문했던 프랑스인이 있었으니 장 무라(Jean Moura)였다. 그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메이는 정신병자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61살의 메이는 “평균키에 풍만해 보였다. 질은 안색에 코는 작았고 콧구멍은 가볍게 확장되었다. 턱은 들어갔고 귀는 컸으며 귓불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작은 마마 자국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와 병마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윤곽은 아직도 곱다” 했는데, 그녀는 제정신이 돌아올 때는 또박또박 지난 일을 회상할 줄도 알지만 발작을 일으킬 때면 누군가를 격렬하게 욕하곤 했다 한다.¹⁴⁾

14) Jean Moura, *Le royaume du Cambodge*(Paris: E. Leroux, 1883) tome1, pp. 232, Khin Sok(1991), p. 109에서 재인용. Khin Sok의 저술을 만나게 해 준 인하대 한국학연

맺음말

베트남에게 캄보디아는 19세기의 실험장이었다. 유사 이래 가장 커진 제국의 역량을 과시하고 동화 정책의 결실을 맺는 장소였다. 이 실험장 운영의 시작부터 끝까지 캄보디아 쪽에는 여왕 메이가 있었다.

캄보디아 왕 앙 찐 사후 베트남은 앙 찐의 둘째 딸 메이를 후계자로 임명했다.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왕은 전 왕에 비해 위상이 열등했다. 우선은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다. 베트남, 캄보디아 공히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낮다. 그래서 비록 그녀가 ‘캄보디아 최초의 여왕’이었지만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권위는 미약했다. 또한 그녀는 앙 찐의 네 딸 중에서 첫째가 아닌 둘째였다. 베트남이 앙 찐의 첫째 딸을 제거해 주었지만 둘째가 갖는 핸디캡은 있었다. 아울러 메이의 직위도 왕이 아닌 ‘군주(郡主)’였다. 메이의 권위가 취약한 만큼 메이를 보호하는 베트남의 위상은 컸다.

이 큰 위상을 확대해 나가다가 베트남은 1837년 캄보디아를 진서성(鎭西城)으로 바꾸어 부현(府縣)을 설치해 내지화 하기 시작했다. 내지화의 요체는 베트남(인) 만들기 즉 동화정책이었다. 왜 캄보디아를 빼앗았느냐고 물으면 베트남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얻은 것은 태국으로부터였지 캄보디아인들로부터 강탈한게 아니라고. 메이를 후계자로 앉힌 것도 그들의 선심으로 강조되었다. 앙 찐이 아들 없이 죽었으니 후사가 끊겼는데 딸이라도 세운 것은 끊어진 줄을 다시 이어주는 ‘홍명계절’의 호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인) 만들기 실험이 시작되면서 메이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진서성의 정치 무대에서 제거되어 베트남에 버려졌다. 이때 사라진 메이를 두고 캄보디아인들 사이에서

구소 윤대영 교수와 하노이인문사회대 사학과 응우옌 반 낀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는 베트남 장군이 메이를 첩으로 삼기 위해 붙잡아 갔다는 소문도 퍼졌다. 쓸모가 다 해서 버려진 메이는 첩으로서의 신세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올 것은 없었다. 그녀는 남부베트남을 전전했다. 캄보디아의 저항에 직면한 베트남은 필요에 따라 그녀를 때로는 남부의 크메르인 거주지에 때로는 베트남인 거주지로 옮겼고, 종종 캄보디아로 보내기도 하였다.

캄보디아의 저항이 고조되었고 태국군도 개입했다. 캄보디아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남부베트남에서 크메르인의 소요도 그치지 않을 태세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캄보디아 실험의 입안자이며 시행자였던 민 망 황제가 사망했다(50세). “취할 수는 있어도 지키기는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베트남은 태국과 타협하기로 하고 종전 협상에 임했다. 1835년부터 시작된 베트남의 13년간에 걸친 캄보디아 개입이 1847년 막을 내렸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티에우 쯤 황제도 사망했다(42세). 베트남은 캄보디아 포기를 준비하던 1845년 메이를 영구 귀국시켰었다. 베트남으로서는, 캄보디아에서 실패할 것이 명백한 마당에 순수한 호의로 메이를 돌려보냈던 것이 아니다. 태국의 후원을 받은 두앙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던 데다가 캄보디아인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신망이 두터워짐을 자각한 베트남은 두앙이 앞으로 캄보디아 왕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메이는 두앙의 세력을 견제하고 캄보디아 내 베트남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였다. 두앙과 메이가 캄보디아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것이 베트남의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는 베트남의 바람일 뿐이지 현실성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두앙을 ‘고만국왕’으로 메이를 ‘고만군주’로 임명해 지위의 격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캄보디아 지분에 대한 명분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양 짝 사후 1835년부터 베트남이 최종적으로 캄보디아로부터 손을 떼던 1847년까지 13년 간의 추이는 베트남 입장에서 보자면 보호

→ 동화 → 파탄 및 포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 과정은 메이의 역정과 맞물려 전개되었다. 그녀를 군주로 임명해서 보호하다가 동화를 추진하던 끝에 베트남으로 끌고 갔다. 캄보디아의 경영이 실패로 드러나면서 메이는 다시 캄보디아로 복귀했다.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이 캄보디아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 버린 것은 아니었다. ‘고만군주’ 메이의 존재는 캄보디아 조정 내 베트남의 그림자였다. 보호의 시기로부터 파탄이란 결과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황제들의 인식 속에 흐르던 한 가지 일관된 입장은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돕는다는 것이었다. 그 과정 속에서 캄보디아는 메이로 환치되기도 했다. 요컨대 병합은 호의였다. 후사가 아닌데도 군주로 앉혀주었던 것이니 격을 높여 준 것이고 진서장군이 그녀를 친 타이 세력으로부터 철저하게 감싸고 보호해 주었다. 상대가 여성(메이든 메이로 상징되던 캄보디아였든)이었기에 ‘보호’의 염은 더욱 강했던가? 베트남인들은 메이가 반역죄에 연루될까 ‘우려해’ 베트남으로 데려가기도 했다. 사세가 여의치 못해 캄보디아로 귀국시켰지만 뜨듯 황제 시기까지 메이에 대한 배려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면에는 캄보디아의 새로운 상징으로 등장했던 ‘여성 메이’에 대한 ‘남성 베트남’의 성적 독단의 심리가 드리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베트남의 캄보디아에 대한 일련의 정책, 즉 보호와 병합, 그리고 내지화의 과정은 문명(베트남)이 야만(캄보디아)을 개조하는 작업 위에, 남성(베트남)이 여성(캄보디아)을 다루는 우월적 심리가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볼 때 메이의 존재는 역사 갈피 속에 스쳐가는 삽화가 아니라 베트남-캄보디아 관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체인 것이다.

〈添記〉

남녀 관계에서도 그러하듯이 양과 음의 대결에서 최종적 승리는 통상 음에게로 돌아간다. 캄보디아의 한 여인에 대한 베트남 황제들의 관심은 프랑스가 개입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사이에 민 망, 티에우 짜 두 황제가 사망했고, 뜨 득 제가 남부베트남을 잃었다 (*메이를 납치해 가 억류했던 곳이다). 메이의 정부(情夫)라 의심받던 쓰엉 민 장도 자살했다. 20살이 되던 해부터 61세까지 메이는 캄보디아의 운명 그 자체였다. 한동안은 끝없는 전략을 꾀기도 했지만 결국 고난을 극복하고 왕궁으로 복귀했다. 캄보디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베트남은 많은 피를 흘렸고, 두 명의 황제가 죽었으며 또 한명의 황제는 ‘후사’도 없이(* 뜨 득 황제는 남성 구실을 못했다) 나라를 잃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앙 짠 사후 캄보디아 상황의 재판이었다. 베트남 탓에 신고(辛苦)를 겪었던 메이였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지극한 관심’을 쏟아 부었던 두 명의 베트남 황제들과 장군 쓰엉 민 장을 먼저 보내고 끝까지 난세를 살아남았다. 그러나 베트남 남성들에게 시달리며 겪어낸 시간이 너무 험난했던지 메이의 상처도 깊었다. 말년에 그녀를 찾아온 것은 정신병이었다. 쓰엉 민 장에게 몸을 팔았다는 수군거림, 실국(失國)의 군주라는 손가락질에 시달리며 그녀는 우동 왕궁의 한 구석에서 미쳐 죽어가고 있었다.

주제어 : 민 망, 캄보디아, 티에우 짜, 메이, 쓰엉 민 장, 보호진랍, 진서장군, 두앙

<참고문헌>

- 『大南寔錄正編列傳初集』. 1889. 東京: 慶應義塾大學言語研究所. 1962.
- 『大南寔錄正編第二紀』. 1861. 東京: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63.
- 『大南寔錄正編第三紀』. 1894. 東京: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77.
- 『大南寔錄正編第四紀』. 1892. 東京: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80.
- 『張嘉祠堂世譜全集』. 1886. Hanoi: Viện Hán Nôm A 3186.
- 崔秉旭. 2009. 『19세기 베트남의 단일민족 만들기 - ‘漢夷有限’에서 ‘一視同仁’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3호.
- 최병욱. 2006. 『동남아시아사 - 전통시대』.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Chandler, David. 2008. *A History of Cambodia*. Philadelphia: Westview.
- Choi, Byung Wook. 2004. *Southern Vietnam under the Reign of Minh Mạng (1820-1841): Central Policies and Local Response*. Ithaca: SEAP. Cornell University.
- Eiland, Michael Dent. 1989. "Dragon and Elephant: Relations between Viet Nam and Siam, 1782-1847." PhD dissertatio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Jacobsen, Trudy. 2009. *Lost Goddesses, The Denial of Female Power in Cambodian History*. Singapore: NIAS Press.
- Khin Sok. 1991. *Le Cambodge entre le Siam et le Viêtnam(de 1775 à 1860)*. Paris: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 Osborne, Milton E. 1997. *The French Presence in Cochinchina and Cambodia*. Chiangmai: White Lotus.

(2009. 12. 30 투고; 2010. 1. 27 심사; 2010. 6. 23 게재확정)

<Abstract>

Vietnamese Annexation of Cambodia(1835-1847) with the Handling of the Queen Mei

Choi Byung-Wook
(Dept. of History, Inha University)

In 1835, quickly after the Cambodian king Ang Chan died, Vietnamese emperor Minh Mang started to proceed his ambition to grab the territory of Cambodia. As the first step, he stationed big forces led by Truong Minh Giang in Phnom Phen, and appointed the Ang Chan's second daughter, Mei, as the successor of her father but with the humble title of Chan Lap Quan Chu, or the Prefecture sovereign of Cambodia.

This article discusses the ways how the Vietnamese leaders manipulated the status of the Cambodian queen with each step of protection, assimilation, and finally a rupture. The author seeks for Vietnamese own theory of annexation in the process. In doing so, the author claims that Vietnamese tough policy of annexation was closely interwoven with the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 Vietnamese emperors and the Cambodian queen, i. e. men and woman.

The first chapter discusses how and why the second daughter was chosen, and what in reality the status of the queen was under the protection of Vietnamese general Truong Minh Giang. Second chapter

shows how much Mei was bullied by the Vietnamese. She was kidnapped to Vietnam, and was even regarded by the Cambodian people that she became the 'lover' or the 'concubine' of the general Truong Minh Giang. Third chapter deals with Vietnam's retreat forced by the Cambodian resistance together with the Thai intervention, and discusses how much Vietnam tried to maintain its authority over Cambodia through the queen Mei.

Cambodia, in the 19th century, was a experimental place for the 'mission of civilization' from the side of Vietnam. Mei was a main character in this perio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stresses that the desire of Vietnam ('civilized') to assimilate Cambodia ('barbarious') was strengthened by the psychology of the male master (Vietnam) to domesticate the female subject (Cambodia). The relationship between Vietnam and Cambodia was not only political but also gender oriented. In this epic, the existence of the queen Mei should be regarded as an important key to understanding of the Vietnamese theory for the annexation of Cambodia.

Key words : Minh Mang, Thieu Tri, Mei, Cambodia, Truong Minh Giang, Duang, Bao Ho Chan Lap,